

“전 세계에 광주 알리는 선수 되고 싶어요”

지역 최초 항저우아시안게임-배틀그라운드 예비선발 전동욱씨

호남대생·배그 프로리그 ‘에이스’ 5월 국가대표 예비선수명단 올라 亞 게임 최종 명단 아쉽게 고배 “꾸준하게 잘하는 선수 되고 싶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프로게이머 ‘단풍’ 전동욱 선수가 지난 5일 광주 광산구 호남대학교에서 자신의 포부를 밝히고 있다.

오는 9월에 열릴 항저우아시안게임 e스포츠 부문에 광주·전남 지역 최초로 ‘국가대표 예비 명단 선발자’가 있다.

호남대학교배틀그라운드 프로그래밍 ‘이글 아울스(Eagle Owls)’ 전동욱(20·단풍) 선수다.

아쉽게도 최근 발표된 최종 출전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그는 ‘더 열심히 해 국가·지역을 대표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며 불타는 의지를 되새겼다.

“프로게이머를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던 아마추어 때를 생각하면 국가대표 후보 명단에 든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 다음에는 꼭 국가대표에 승선하겠습니다.”

지난 5일 광주 광산구 호남대학교에서

했다. 이는 광주·전남 최초다. 그는 국내 예비 명단 발탁 전, 뱅퀴시·성남 제노알파·이글 아울스 팀을 거치며 종합 킬 랭킹 3위·헤드샷 1위 등의 수준급 성적을 거둔 ‘에이스’였다.

전 선수는 “작년 항저우아시안게임 배그 모바일 국가대표 후보 30명이 발표됐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대회가 연기됐고 발표된 명단도 흐지부지 됐다”며 “올해는 성적이 좋지 않아 (발탁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운 좋게 예비 명단 16명에 들게 됐다.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했다. 국가와 나라·소속팀을 위해 꼭 뛰고 싶었다. 욕심이 안 났다 하면 거짓말이다”고 말했다.

아쉽게도 전 선수는 지난달 말 발표된 최종 국가대표 출전 명단 5인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이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다’며 자신을 다독였다.

전 선수는 “국가대표·소속팀 연습을 하며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루 8시간 집중적으로 매진했다. 프로 하면서도 이렇게까지 연습을 해본 적이 없었다”며 “그런데도 연습량이 부족했는지 최종 명단에서는 탈락했다. 대학 수업을 병행하

면서 했던 까닭도 컸던 것 같다. 아쉽긴 하지만 내로라하는 사람들이 모여 연습했던 탓인지, 작전 브리핑 스킬·에임의 정교화 등 개인적으로 이 기간 많은 성장을 하게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돈 주고도 할 수 없는 경험을 했다는 것에 매우 만족한다. 마지막 5인에 뽑힌 선수들도 다 개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라 결과 발표 후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며 “이번 과정을 양분 삼아 다음에 열릴 아시안게임에서는 꼭 국가대표로 차출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전 선수의 목표는 이제 오는 7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월드 인비테셔널(PMWI) 출전’이다. 아시안게임에 나가지 못한 한을 배그 국제리그를 통해 풀겠다는 각오다.

전 선수는 “PMWI는 글로벌 e스포츠 대회로 프로 선수라면 누구나 꿈꾸는 대회다. 특히 한국을 대표해 나간다는 점에서 자긍심 또한 크다”며 “현재 이글 아울스 팀 성적이 좋다. 끝까지 노력한다면 국가·지역·팀을 대표해 출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이글 아울스는 ‘배그 모바일 프로 시리즈’(PMPS) 페이스1에서 4위를 기록, 이주부터 시작되는 페이스2에서 준수한 성적을 거둘 시 PMWI 출전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선수는 ‘꾸준한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이 생명이 길지 않다. 기회만 된다면 20대 중반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싶다. ‘반짝’이는 선수보다는 길게 가는 선수가 꿈이다”며 “이번 아시안게임을 시작으로 e스포츠와 모바일 게임시장이 더욱 커졌으면 좋겠다. 세간의 주목을 받는다면 이런 단점들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소망했다.

정연철 이글 아울스 구단주(호남대학교 e스포츠학과장)는 “광주·전남권은 e스포츠 교육·선수 발굴 등에 특화돼 있다. 그런 지점에서 이번 전 선수의 아시안게임 탈락이 몹시 아쉽다”며 “앞으로 이글 아울스를 ‘광주를 대표하는 팀’으로 만들겠다.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광주 중앙공원서 천연기념물 ‘팔색조’ 포착

민간공원특례사업 영향 주목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2마리 이상의 소리가 확인돼 중앙공원에서 번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환경연합은 좀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현재 중앙공원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아파트 건설과 공원 조성사업이 예정돼있다. 환경연합은 전문가와 함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팔색조의 서식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모니터링과 함께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광주 도심 속 공원에서 천연기념물 제204호이자 멸종위기종인 팔색조(사진)가 발견됐다. 6일 광주환경운동연합(환경연합)에 따르면 전날 오전께 광주 서구 중앙공원 일대에서 ‘2023년 광주 도시새 센서스’에 참여하는 시민조사팀의 카메라에 팔색조 1마리가 포착됐다.

팔색조는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자료 목록에 취약종으로 분류된 국제보호조이며, 멸종위기에 있는 진귀한 여름새로 종(種) 자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했고 거제도 학동리의 번식지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팔색조는 6월 초중순께 4~6개 알을 낳고 보름간 포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팔색조가 광주 서구 중앙공원에서 발견

김혜인 기자

6월 모의평가 전대 의예과 287점 지원 가능

시교육청, 6월 모의평가 가채점 국수탐...서울대 인문 280·자연 274 오늘 광주교육연구원서 설명회

2024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 전남대 의예과는 287점, 조선대의예과는 283점 선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진학부장협의회와 진학분석팀은 국·수·탐 원점수 300점 기준으로 2024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가채점 지원 가능 대학 및 학과를 예측한 결과, 서울대학교는 인문계열 280점 내외, 자연계열 274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고려대·연세대는 인문계열 272점 내

외, 자연계열 270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지원 가능 점수는 269점 내외, 광주교육대학교는 233점 내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272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남대 인문계열은 영어교육과 238점, 국어교육과 234점, 행정학과 232점, 경영학부는 228점, 정치외교학과 220점, 국어국문학과는 216점 등으로 예측된다.

자연계열은 의예과 287점, 치의학전문대학원 280점, 약학부 275점, 수의예과 270점, 전기공학과 256점, 간호학과 231점, 조경학과 222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의 경우 의예과 283점, 치의예과 277점, 약학과 273점, 간호학과 208점 내

외로 예상된다. 정시 선발 비율이 전년도 20.5%에서 올해 8.8%로 대폭 감소해 정시 지원 시, 이월 인원 확인의 중요성이 확대됐다.

분석팀 관계자는 “배치기준 자료의 학과 및 배치군은 2024학년도 전형 계획안에 따른 것으로 정시전형 확정 발표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단순 지원가능 기준 점수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며 “실제점 분석자료가 나오면 대학별 환산 점수로 계산해 유불리 정도를 판단해 대입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7일 오후 7시 광주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고3 진학부장 대상 6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분석설명회를 연다.

양기람 기자

그린알로에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